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7. 16.(화) 06:00 < 7.16.(화) 석간 > 배포 2024. 7. 15.(월)

민관의 소통과 협력으로 석유가격 안정과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 모색

- 정유 4사 대표와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
- 금년 3분기 중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발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남호 2차관은 7.16일(화) 국내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들과 만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유가 상승, 계절적 요인,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 등에 따라 국내 석유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고, 석유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최남호 2차관은 “4월 이후 물가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언급하고, “업계도 과도한 가격인상은 자제하고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뜻을 함께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석유업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과 직영주유소의 판매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라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항공유 분야에 대한 논의도 심도 깊게 진행되었다. 최남호 2차관은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는 우리 석유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써 석유·항공업계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금년 3분기 중 국토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항공유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석유업계에서도 과감한 투자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지속가능항공유(SAF : Sustainable Aviation Fuel) : ①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②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③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

아울러, 금년 하반기 수출 확대 및 실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단기적인 애로사항과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도 석유시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220)
		담당자	서기관	김기열 (044-203-52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석유업계 조찬 간담회 개요**

□ 추진배경

○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24년 하반기 주요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

□ 행사개요

○ **(일시)** 7월 16일(火) 오전 8:00~9:00

○ **(장소)**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104호

* 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참석자) 산업부 2차관,** 자원산업정책국장, 석유산업과장, 정유4社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표, 석유협회 부회장

□ 세부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08:00~08:05	(05′)	‣ **산업부 2차관 모두발언**	공개
08:05~08:30	(25′)	‣ **'24년 정유업계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조찬 병행 (비공개)
08:30~09:00	(30′)	‣ **자유토론**(비공개)	